

비정규직 많고 제조업 부족한 광주경제 유일한 대안

‘광주형 일자리’ 왜 필요한가

광주 경제는 기아차 광주공장 그리고 삼성광주공장을 중심으로 한 백색가전이 8할을 차지하는 구조다. 대기업 공장의 하청기업들이 그 아래에 자리하고, 그 밑에 여타 중소기업들이 자리하고 있다.

일자리 역시 피라미드 구조다. 대기업 정규직, 하청기업 직원, 중소기업 직원, 비정규직, 계약직 등으로 이어지면서 연봉 수준은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통계로 본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에 따르면 광주지역 5~300인 미만 사업체의 상용근로자는 매달 평균 173.9시간, 300인 이상은 162.7시간을 일하면서 각각 284만8000원, 448만1000원의 임금을 받는다. 중소기업 직원은 더 많은 시간 일하며, 더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의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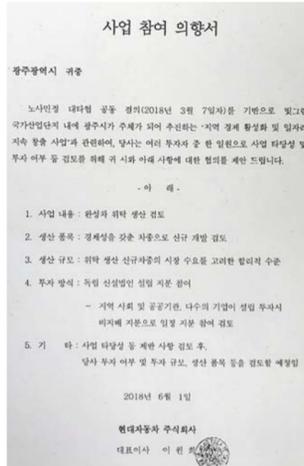
임금 근로자 56만6000명 가운데 무려 20만9000명(36.9%)이 비정규직으로, 이들은 고용 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광주는 전국 평균(32.9%)보다 비정규직 비중이 더 높다.

광주에서 ‘좋은 일자리’인 300인 이상 대기업의 수는 약 100개로, 사업체 11만 6000개의 0.1%에 불과하다. 채용 비리나 가족 승계 등으로 인해 갈수록 이 ‘바늘구멍’은 더 좁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돈을 벌어들이는’ 제조업은 9000개로 전체 사업체의 7.3%다. ‘돈을 소비하는’ 도소매업 3만2000개(27.3%), 음식숙박업 1만9000개(16.7%), 운수업 1만1000개(9.1%) 등에 비해 턱없이 적다.

이 같은 산업 구조의 불균형, 좋은 일자리 및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하는 산업체 등의 부족은 지역 총생산(GRDP)의 만년 최하위, 그리고 청년 인력의 이탈로 이어

300인 이상 대기업 0.1% 불과
일자리 없어 청년 이탈 심화
완성차 공장 설립 성장 새 엔진



현대자동차 사업 참여 의향서.

졌다. 지난 2016년 통계로 광주의 GRDP는 30조4000억원으로 전국 비중의 2.0%, 제주(1.0%)를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맨 끝에 자리하고 있다.

지난해 순전출 인구는 모두 8000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서울로 3000명, 경기도 2000명이 주소를 옮겼다. 모두 좋은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난 청년들이다.

호남지방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호남-제주의 일자리지표에 따르면 2017년 8월 기준 만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36.3%로

전국 평균 42.1%보다 크게 낮았고 2010년에 비해서도 1.6%p 하락했다. 반면 만 65세 이상 고령층 고용률은 30.6%(전국 평균 30.6%), 만15세 이상 여성은 50.3%(전국 평균 50.8%)로 2010년에 비해 각각 7.3%p, 2.2%p 늘었다.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설립 사업’은 단순한 자동차 공장을 짓는 것에 멈추지 않는다. 생산직은 물론 사무-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고용하면서 향후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등 현대차의 추가 투자가 이어질 경우 질 좋은 다양한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 여기에 인건비 부담을 줄이면서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광주형 일자리 시스템이 정착할 경우 다른 대기업의 추가 투자까지 이어져 강성도시 이미지의 광주가 ‘제조업의 메카’로 재탄생할 수도 있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해외 리스크를 감소하며 인건비가 낮은 외국으로 향했던 대기업의 투자를 국내로 되돌려 전국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 문제인 정부에서도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지역노동계가 협상 초기 논의된 초임 연봉 수준에 반발하며 광주 노사민정을 이탈했지만, 광주시는 물론 문제인 정부마저도 이 같은 ‘매력’ 때문에 쉽사리 광주형 일자리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

민선 6기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2014년 6월 ‘광주형 좋은 일자리 1만개 창출’ 공약을 내놓자 문제인 대통령(당시 당대표)가 ‘소득 주도 성장과 광주형 일자리’를 주제로 국회 세미나를 여는 등 광주형 일자리의 논의는 4년 여간 광주와 문제인 정부의 상징과도 같은 정책이었던 셈이다.

광주상공회의소는 30일 성명서를 내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완성차공장 설



문태통령 양산 사저 뒷산 산책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9일 오전 비가 내리는 경남 양산시 사저 뒷산에서 산책하고 있다. /연합뉴스

립이 순항하도록 노동계가 다시 한번 마음을 열고 대승적으로 협력하기 바란다”며 “광주형 일자리인 완성차 합작법인 설립이 노동계의 불만 선언으로 현대자동차 측 투자 의향 철회 가능성마저 제기되며 무산될 상황에 놓였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경제계는 노사민정 당사자가 응집력을 발휘해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공장 합작법인 설립이 결실 보기를 염원한다”고 강조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美 상응조치? ... 연내 종전선언 이뤄질까

북미정상회담 가시화에 靑, 김정은 답방전 성사 지원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교착상태에 빠졌던 북미 간 비핵화 대화 가 재개될 조짐을 보이면서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의 계기가 될 종전선언이 연내 이뤄질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적극적 중재자 역할로 폼페이오 장관의 재방북이 현실화된다면 북미 간의 실무 협상을 통해 이뤄져 2차 북미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 등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이같은 상황이 전개된다면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 북한이 미국에 요구하는 ‘상응조치’ 등을 놓고 양측의 간극을 좁힐 수 있게끔 물밑에서 지속적인 조율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지난 9월 29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 없이는 국가의 안전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 없으며,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먼저 핵무장을 해제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시험 등을 중지하며 신뢰를 키우는 조치들을 충분히 해온 만큼 이제는 미국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보여야 한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이 방미 기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제재완화와 인도적 지원·연락사무소 개설·경제시찰단 파견 등 다양한 선택지들을 제시한 것도 미국의 상응 조치를 끌어내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 있다. 하지만 미국 측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상응조치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이 가장 역점을 두는 상응조치는 종전선언이다. 비핵화 협상의 입구나 초기 단계 비핵화 조치 이행 단계에서 종전선언을 함으로써 비핵화 협상에 동력을 공급하고자 남북미 3자의 종전선언 성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협상 시한과 관련해 ‘시간 싸움(time game)’을 하지 않겠다고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고 폼페이오 장관도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10월 이후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한 만큼 그 시기는 11월~12월이 되리라는 전망도 많다. 실제로 북미정상회담이 이 시기에 열린다면, 이후 문 대통령으로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먼저 핵무장을 해제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시험 등을 중지하며 신뢰를 키우는 조치들을 충분히 해온 만큼 이제는 미국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보여야 한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이 방미 기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제재완화와 인도적 지원·연락사무소 개설·경제시찰단 파견 등 다양한 선택지들을 제시한 것도 미국의 상응 조치를 끌어내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 있다. 하지만 미국 측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상응조치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이 가장 역점을 두는 상응조치는 종전선언이다. 비핵화 협상의 입구나 초기 단계 비핵화 조치 이행 단계에서 종전선언을 함으로써 비핵화 협상에 동력을 공급하고자 남북미 3자의 종전선언 성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협상 시한과 관련해 ‘시간 싸움(time game)’을 하지 않겠다고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고 폼페이오 장관도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10월 이후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한 만큼 그 시기는 11월~12월이 되리라는 전망도 많다. 실제로 북미정상회담이 이 시기에 열린다면, 이후 문 대통령으로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먼저 핵무장을 해제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시험 등을 중지하며 신뢰를 키우는 조치들을 충분히 해온 만큼 이제는 미국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보여야 한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이 방미 기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제재완화와 인도적 지원·연락사무소 개설·경제시찰단 파견 등 다양한 선택지들을 제시한 것도 미국의 상응 조치를 끌어내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 있다. 하지만 미국 측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상응조치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이 가장 역점을 두는 상응조치는 종전선언이다. 비핵화 협상의 입구나 초기 단계 비핵화 조치 이행 단계에서 종전선언을 함으로써 비핵화 협상에 동력을 공급하고자 남북미 3자의 종전선언 성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협상 시한과 관련해 ‘시간 싸움(time game)’을 하지 않겠다고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고 폼페이오 장관도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10월 이후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한 만큼 그 시기는 11월~12월이 되리라는 전망도 많다. 실제로 북미정상회담이 이 시기에 열린다면, 이후 문 대통령으로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먼저 핵무장을 해제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시험 등을 중지하며 신뢰를 키우는 조치들을 충분히 해온 만큼 이제는 미국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보여야 한다는 뜻이다.

판문점 JSA·철원 DMZ 지뢰 제거작업 돌입... 남북군사합의 이행

10·4선언 11주년 기념행사
4~6일 평양 개최 의견 접근

1일부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과 강원도 철원의 비무장지대(DMZ) 일대에서 지뢰 제거작업이 시작된다. 이들 지역에서 지뢰 제거작업은 평양정상회담에서 서명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의 본격적인 이행을 의미한다. 군사분야 합의서에서 남북은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판문점을 감싸고 있는 지뢰부터 제거하기로 했다.

같은 날 시작되는 화살머리고지 지뢰 제거는 11월 30일까지 끝내기로 했다. 북한

도 우리 군의 작업 시간에 맞춰 자체적으로 판문점 일대의 지뢰 확인과 제거작업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지뢰 제거 작업이 진행되면 남·북·유엔사 3자 협의회가 공동되어 JSA 비무장화 이후 적용할 근무규칙, 양측 비무장 군인들의 근접거리 합동 근무 형태 등의 규정 마련을 논의하게 된다. JSA 내 군사분계선(MDL)을 넘은 민간인과 관광객 등이 월북 또는 월남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대책도 이 협의체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남북은 10·4선언 11주년 기념행사를 4~6일 평양에서 개최하는 데 의견접근을 이뤘다고 통일부가 지난 9월 28일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소

장 회의가 오늘 개성 연락사무소 회담장에서 개최됐다”며 “남과 북은 10·4선언 11주년 기념행사를 10월 4~6일 평양에서 개최하고 우리측 대표단 150명 내외가 참석하는 데 의견접근을 봤다”고 밝혔다. 이어 “10·4선언 11주년 기념행사와 관련된 실무적 문제들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노무현재단 이사장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조평규 통일부 장관 등을 중심으로 민간 공동 방북단이 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남측이 기념행사의 4~6일 평양 개최에 ‘합의’한 것이 아니라 ‘의견 접근’을 봤다는 표현이 사용된 것으로 볼 때 북측의 준비 상황이나 주변 여건

등에 따라 일정에 변동이 생길 여지는 남아있어 보인다.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방북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10·4 선언을 채택한 이후 남측이 이를 기념하는 공동행사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0·4선언 11주년 기념을 위한 공동행사는 평양공동선언 합의사항이다. 합의문에는 “남과 북은 10·4선언 11주년을 뜻깊게 기념하기 위한 행사들을 의의 있게 개최한다”고 돼 있다.

남북은 10·4선언 공동행사에 의견접근을 이룬 데 이어 조만간 고위급회담을 열어 이산가족 상설전화소 조기 개소 등 평양공동선언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Old & New

편안한 구두 사스
www.koreasas.co.kr 공식수입사: 고보실업(주)

함께 할 대리점 사업자를 초대합니다

Comfort, Style and Quality

미국 텍사스주 샌 안토니오시에 소재한 편안한구두 SAS Shoemakers와 긴밀한 업무 관계를 맺고 있는 당사는 1994년부터 24년간 한국공식수입업체로 지정되어 국내 유명백화점에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4년간 국내 편안한 구두의 대명사로 알려진 사스구두는 많은 고객분들께 크게 환영을 받으며 국민들 발건강에 이바지해 왔습니다.

사스는 새로운 트렌드에 맞추어 편안한 신발을 토대로 다양한 스타일과 연령층에 맞는 New Design으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본사의 판매확장계획으로 국내지역별 판매 대리점을 모집합니다. 성실과 신용으로 함께 사업을 원하시는 분들의 상담을 기다립니다.

100% 정품, 남·여 수제화

지역대리점 모집 문의 : 02-544-7294

전화상담 문의

본사면접 및 서류제출 ※각주

대표이사 면접 및 계약

대리점 개설

※본대리점사업 희망자의 사업계획서(자유양식) 발표